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05 닥터 365 30 아침 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튼튼생활체조(재)	40 월화드라마 〈힐러〉(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가데까지 가보자(재)	00 KBS네트워크 특선 보물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50 VJ특공대(재)	00 찾아라 맛있는 TV스페셜	10 KBC 생활뉴스 30 한국의 맛
12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00 MBC 정오뉴스 20 문화 四色	00 SBS 12 뉴스 45 닥터 365 55 중흥 S-클래스배 2014 고교동문골프대회(재)
1	40 김부자의 뉴스통	00 2014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 1국, 중국 시안〉	00 추적 60분(재)	05 TV속의 TV 55 내꺼야 폴록	55 날씨와 생활
2	50 직언직설		00 KBS 뉴스타임 10 7인의 미스코리아(재)	25 똑똑 키즈스쿨 55 MBC 뉴스	0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KBS 뉴스 10 한-아세안 정상회의 특선 앙코르 걸어서 세계속으로 〈베트남〉(재)	00 꼬마신랑 쿵도령(재) 30 자동 공부책상 위키	05 아하! 동물탐험대2(재) 55 아웅다웅 동화나라	00 SBS 뉴스 10 잘먹고 잘 사는 법 식사 하셨어요?(재)
4	00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시사진단 55 튼튼 생활체조	00 TV 유치원 콩다콩 30 애니월드 50 2014 프로야구 골든 글러브 시상식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재)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5	00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 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 7 30 러브 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월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0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뉴스토리
9	3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TV동화 빨간자전거 스페셜	00 월화드라마 〈힐러〉	00 월화특별기획 〈오만과 편견〉	00 SBS 대기획 〈비밀의 문〉
11	00 모큐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소중한 나눔 이야기	15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룸메이트
12	10 여 변호사가 말한다(재) ①:20 닥터 지.바.고	30 ABU 국제공동제작 CARE4 〈제2편, 중국〉 ①:20 세계는 지금 스페셜 45 뉴턴의 사과나무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세상의 모든 다큐 ①:40 영상앨범 산(재)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①:45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①:05 자기야(재)

EBS

05:00 World News Review
05:40 성공 인생후반전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07:00 코코몽2(재)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뽀(재)
07:45 꼬마버스 타요(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두다다쿵(재)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곰디와 친구들
09:05 원더볼즈(재)
09:20 출동! 슈퍼윙즈(재)
09:35 아기 고릴라 둥둥
09:40 부모 〈부모광장〉
10:10 EBS 특강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0: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 〈휘바! 핀란드〉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재)
13:05 지식채널e
13:10 생활백과
13:25 문화유산 코리아
14:00 두키탐험대
14:15 우당탕탕 아이쿠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4:45 코코몽2
15:00 신나는 요정 학교
15:15 지구를 지켜라
15:30 올리비아
15:45 피터 래빗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6:30 오스카의 오아시스
16:45 곰디와 친구들(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뽀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두다다쿵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지파이터스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사왓디 캅! 태국〉
21:30 한국기행 〈가야산〉
21:50 EBS 다큐프라임 〈삶과 죽음의 그래프, 골목은 동사다〉
22:45 리얼극장 〈아빠와 사춘기〉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열기 〈유종현, 윤선명의 국어〉
00:50 〃 〈오광석의 수학Ⅰ〉
01:40 〃 〈오렌지의 영어〉
02:30 수능길잡이〈문학〉
03:20 〃 〈수학Ⅰ〉
04:10 〃 〈미적분과 통계기본〉
05:00 〃 〈영어독해 유형〉
06:40 〃 〈박근영의 미적분Ⅰ〉
07:30 〃 〈차현우의 미적분Ⅱ〉
08:20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09:10 〃 〈독서와 문법〉
10:0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10:50 〃 〈최은진의 수학Ⅰ〉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2:1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13:05 〃 〈윤장환의 영어〉
14:00 고등예비과정〈김소연의 수학Ⅱ〉
14:50 〃 〈주혜연의 영어〉
15:40 2016 수능열기 〈오렌지의 영어〉
16:30 〃 〈유종현, 윤선명의 국어〉
17:20 〃 〈오광석의 수학Ⅰ〉
18:1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19:20 〃 〈최은진의 수학Ⅰ〉
20:00 〃 〈김소연의 수학Ⅱ〉
20:50 〃 〈주혜연의 영어〉
21:50 수능길잡이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22:50 리얼체험 땀
23:00 2016 수능개념 〈주혜연의 영어〉

EBS플러스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07:30 친절한 수학 익힘풀이 5-2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08:30 한경TESAT 시험대비강좌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수학 1 (상)〉
10:30 〃 〈역사 2〉
11:10 〃 〈국어③④〉
11:50 〃 〈수학 2(상)〉
12:30 등업신공 〈수학1(하)〉
13:10 〃 〈수학2(하)〉
13:50 〃 〈과학2(하)〉
14:30 〃 〈수학2(하)〉
15:20 만점왕 〈수학3-2〉
15:50 〃 〈수학4-2〉
16:20 〃 〈수학5-2〉
16:50 〃 〈수학6-2〉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수학집중 5-2〉
18:00 TV 중학 〈영어 3-2〉
18:40 〃 〈수학 3-2〉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20:00 EBS 기획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공모 나피디
22:00 등업신공 〈사회3-2〉
22:4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23:20 중학e포스 영문법 2
24:00 백점공략 〈수학 2〉
24:30 〃 〈과학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9일(음 10월 18일 甲寅)

子 36년생 상당히 벗어나 있다. 48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길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60년생 방식이 전환 될 수도 있느니라. 72년생 현저한 변화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84년생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82, 94

丑 37년생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절실하다. 49년생 진중함이 필요 하다. 61년생 발전 동력의 촉매제가 생긴다. 73년생 준비가 덜 되었다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85년생 부수적인 일이 번거롭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9, 15

寅 38년생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보완해야 두어야 할 때이니라. 50년생 양자의 사이에서 조정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다. 62년생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라. 74년생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5, 64

卯 39년생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51년생 한 눈에 썩 들지는 않겠지만 수용하는 것도 괜찮다. 63년생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75년생 전면적으로 거사를 도모할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23, 32

辰 40년생 한 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52년생 행하더라도 성과가 현저하지는 않을 것이다. 64년생 평온한 하루 속에 큰 깨달음이 있는 날이다. 76년생 관점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8, 71

巳 41년생 완벽을 꾀하려다가 오히려 자승자박하는 형편이 될 수 있다. 53년생 맹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5년생 원리를 파악한다면 정곡을 찌를 수 있다. 77년생 우회한다면 더 좋은 길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4, 77

午 42년생 설령 눈에 띄더라도 못 본체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느니라. 54년생 약간만 뒤를 돌아본다면 이해하게 되리라. 66년생 이전하거나 확장할 수도 있는 운로다. 78년생 순탄하다. 행운의 숫자 : 81, 08

未 43년생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괴로워 할 수도 있다. 55년생 내키지 않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니라. 67년생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9년생 자연히 해결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6, 45

申 44년생 가닥을 잡고 보면 의외로 쉬울 것이다. 56년생 어떠한 현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줏대가 있어야겠다. 68년생 계속 진행한다면 전도양양하리라. 80년생 위험 요소를 무시하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1, 84

酉 45년생 의외의 장애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느니라. 57년생 약간만 신경 쓴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69년생 부담스럽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81년생 이면의 처지와 환경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92, 55

戌 46년생 역량을 발휘하고 정성을 다 해야 할 것이다. 58년생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겠다. 70년생 가까운 이에게 꼭 챙겨줘야 할 일이 있다. 82년생 도를 넘는다면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9, 48

亥 47년생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성국이로다. 59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 71년생 검토해 보고 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83년생 염원해 왔던 바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능률이 오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0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2014 대중문화 결산] ① 방송·연예계 다시 분 한류

'별그대' 열풍에 '차이나 머니' 공세

스타들 중국진출 급증 … '미생' · '비정상회담' 등 케이블 채널 잇단 히트

2014년 방송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계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 열풍에서 시작해 '차이나 머니' 공세로 막을 내렸다.

2013년 12월18일 시작해 올해 2월27일 끝난 '별그대'가 중국에서 초대박을 치면서 이를 계기로 중국 대륙에서 한류 붐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됐고, 이와 발맞춰 전세계, 전방위적으로 손을 뻗어나가고 있던 차이나 머니가 한국 대중문화계 속으로도 적극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타들의 중국 진출이 이어졌고, 탕웨이-김태용, 채림-가오쯔치 등 한-중 스타들이 국경을 넘어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한-중 문화계가 한층 가까워졌다.

여기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오랜 기간 일본을 향해 있다 '별그대'를 기점으로 빠르게 중국 쪽으로 선회 중이던 한류의 나침반 바늘은 완전히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예능계에서는 한국말 잘하는 주한 외국인을 내세운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선보였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운 한국 프로그램의 해외 포맷 수출이 본격화됐다.

한류 드라마의 중국 수출가는 '별그대' 덕분에 올 한해 가파르게 급등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회당 1만 달러(약 1000만 원) 정도에서 중국에 팔리던 한류 드라마의 수출가는 지난해 10월 한류스타 이민호·박신혜 주연의 '상속자들'이 회당 3만 달러에 팔리고, 뒤이어 '상속자들'의 후광을 입은 '별그대'가 4만 달러선에서 팔리면서 상승세를 탔다. 11월 시작한 이종석·박신혜 주연의 '피노키오'가 회당 28만 달러(약 3억1000만 원)에 판매되면서 한류 드라마 대 중국 수출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21부작인 '별그대'가 중국 수출로 8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불과 1년 만에 '피노키오'(20부작)는 62억 원을 벌어들이게 됐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스타들은 중국으로 향했다. 이민호, 김수현, 전지현, 박해진 등이 중국 광고시장 인기 모델로 부상하고 송혜교, 김태희, 송승헌, 비, 권상우, 손태영, 이준기, 김하늘, 박시후, 김범 등은 중국 작품을 촬영했거나 촬영을 앞두고 있다. 또 채림과 추자현은 아예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한편에서는 소후닷컴이 150억 원을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에 투자해 지분 6.4%를 확보하는 등 차이나 머니가 국내 기획사·제작사와 손잡는 경우가 속속 생겨났다.

중국 내 한류가 다시 불붙으면서 한류를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움직임도 커졌다. 단순히 한류를 수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류의 노하우를 배워 중국 콘텐츠의 힘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개그콘서트' '아빠 어디가?' '런닝맨' '꽃보다 할배' '우리집에 연예인이 산다' 등의 포맷이 중국에 수출돼 올해 중국 버전으로 제작되거나 제작을 앞두고 있다. 미국에도 포맷이 수출됐다. 드라마 '굿닥터'와 '별에서 온 그대'가 각각 미국 지상파인 CBS와 ABC에, 예능 '꽃보다 할배' 역시 지상파인 NBC에 각각 포맷이 팔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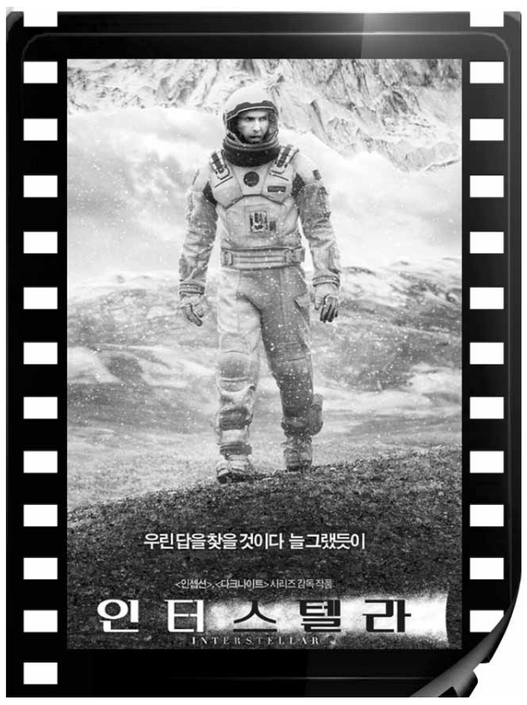
올해는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을 내세운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 있었다. JTBC '비정상회담'과 MBC '헬로! 이방인'은 아예 외국인들로 속을 채운 프로그램이고, MBC '일밤-진짜 사나이'·'나혼자 산다',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등의 프로그램에도 외국인들이 출연해 감초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케이블 채널 tvN이 '꽃보다 할배'에 이은 '꽃보다 누나'와 '꽃보다 청춘'의 잇단 히트, '삼시세끼'의 성공으로 주가를 높였다. 지상파 드라마는 MBC '왔다! 장보리'와 '마마', KBS2 '가족끼리 왜이래', KBS1 '정도전' 등 연속극으로 체면을 세웠다. 케이블에서는 tvN '미생'이 신드롬을 일으켰다. 또 tvN '연애 말고 결혼'· '고교처세왕', OCN '나쁜 녀석들' 등도 회자됐다.

KBS는 5월 청와대와 사장의 보도·인사 개입 의혹 제기로 노조가 파업까지 하는 한 달여의 홍역을 치른 끝에 결국 길환영 사장이 해임되는 사태를 겪었다. 한편, '영원한 공주' 배우 김자옥이 암투병 끝에 6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고, 1980년대 스크린의 섹시 스타 김진아도 암으로 51세에 생을 마감했다.

영화 '인터스텔라' 1000만 고지 앞둬

'아바타''겨울왕국' 이어 역대 외화 흥행 3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인류 멸망과 우주 탐사를 그린 영화 '인터스텔라'가 1천만 고지를 향해 여전히 순항 중이다.

'인터스텔라'는 지난 3일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엑소더스 : 신들과 왕들'에 주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지난 5~7일 48만1138명을 끌어모아 누적 관객수 910만1673명을 기록했다. 이는 '아바타'(2009·1362만)와 '겨울왕국'(2014·1029만)에 이은 역대 외화 흥행 3위의 성적이다.

개봉 첫날 22만명의 관객을 모은 '인터스텔라'는 개봉 3일째에 100만명을 돌파하고, 8일째에 300만명을 넘어서며 천만 고지를 향해 승승장구해왔다.

'엑소더스'가 개봉하며 전주보다 평일·주말 관객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며 흥행 열기가 다소 주춤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30~40%의 점유율을 과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엑소더스'만큼 '인터스텔라'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대작이 개봉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다음 주께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부터 '인터스텔라'의 아이맥스관 상영을 중단했던 CJ CGV는 관객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에 따라 8~10일 전국 11곳의 아이맥스 상영관(왕십리·용산·춘천·소풍 제외)에서 밤 시간대에 '인터스텔라'를 상영하기로 해 힘을 보탠다.

남진· 장윤정 '대한민국 전통가요대상' 대상 영예

가수 남진과 장윤정이 '제13회 대한민국 전통가요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8일 (사)한국전통가요진흥협회(회장 김정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는 10일 오후 4시30분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열리는 이 시상식에서 남녀가수부문 대상을 받는다.

우수상은 진성과 금잔디, 인기상은 박구윤과 윤수현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음반상은 남수란, 공로상은 박현빈과 김상희가 차지했다. 신인상에는 '콩콩콩'의 박주연이 이름을 올렸다.

'전통가요대상'은 한국전통가요진흥협회가 전통 가요를 지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트로트 축제다. /연합뉴스

남진

장윤정